

승리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추가 입건

포다론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 올려 정준영 3건 최중훈 1건 추가 유포 의심스러운 버닝썬 자금 흐름 발견 경찰 유착·탈세 의혹 수사도 박차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이승현·29)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30)과 이미 2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입건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중훈(29)도 또 다른 유포 사실이 드러났다. 승리 등과 관련한 갖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동시에 그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스마트폰 메시지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 이미지를 유포한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승

리 최중훈 등이 포함된 단체대화방 등에 올린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승리는 이 대화방이 아닌 다른 대화방에 촬영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은 3건 등 총 11건, 사진을 2차례 유포한 최중훈은 1건의 추가 유포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경찰은 정준영을 2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승리 및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좀 더 진전된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경찰은 이날 "그보다 더 나아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해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버닝썬의 경찰 유착과 탈세 관련 의혹 등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인 대만의 '린 사모'가 버닝썬을 돈 세탁 창구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

지 제기되면서 경찰은 클럽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으로부터 파문을 키운 사건이 돈세탁과 광범위한 탈세 사건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로 경찰은 이날 "버닝썬의 회계자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면서 수사 상황이 급진전하고 있음을 알렸다. 린 사모는 그룹 박병의 팬으로 승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승리와 최중훈 등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대화를 통해 제기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경찰총장'이라고 언급한 윤 모 총경과 관련해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리힐딩스 유 모 대표와 그의 부인인 연기자 박한별이 함께 골프를 친 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 중이다. 앞서 최중훈은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에게 말레이시아 케야프 공연 티켓을 제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해시태그 컷



모녀같은 케미

실제 모녀 사이만큼 다정해보인다. 연기자 유이가 선배 연기자 임예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최근 종영한 KBS 2TV 주말극 '하나뿐인 내편'에서 모녀로 출연했다. 드라마 흥행 성공으로 포상휴가를 받고 떠난 베트남 나트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이의 수줍은 미소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임예진의 미모가 햇살에 빛이 난다. 팬들은 "자매라고 해도 믿겠다" "사이좋은 선후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유이 #임예진 #하나뿐인내편 #친구사이?

돌아온 '나나' 작품 복 터지나

OCN '킬잇'에선 걸크러시 형사
종영 후엔 KBS '저스티스' 출연



나나

연기자 나나가 드라마 '사자' 제작 중단 사태로 빛어진 공백의 아쉬움을 풀어내듯 호행 속에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나는 현재 방송 중인 OCN 토일드라마 '킬잇'에 이어 7월 KBS 2TV 드라마 '저스티스'에 출연할 예정이다. 2016년 tvN '굿와이프' 이후 2년 이상 안방극장에서 연기자로 얼굴을 비추지 못한 아쉬움을 털어낸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사전제작 드라마 '사자'에 캐스팅됐다. 하지만 제작사와 제작진의 갈등으로 촬영이 중단되는 등 순탄치 않은 제작과정을 겪으며 결국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2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가 무산됐다. 연기자로 인정받고 한창 활동해야 할 시기에 1년 이상 시간을 버린 셈이 됐다.

나나는 2009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오렌지카라멜을 거치며 가수로 활동하다 드라마 '굿와이프'를 통해 본격적인 연기활동을 시작했다. 전도연과 유지태 등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밀리지 않고 '초보'답지 않은 활약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연기자 나나'의 이미지를 시청자에 심어줬고,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2017년 영화 '꾼'을 통해 영역을 넓힌 그는 '사자'로 자신의 위상을 굳힐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사자'의 제작과정상 파행이 발목을 잡았다.

기다림 끝에 나나는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킬잇'은 그동안 공백을 때우고 만회할 수 있는 무대가 됐다.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다. 극중 형사인 그는 화려한 액션과 걸크러시 매력으로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아픈 가정사를 속으로 삼키며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기도 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저스티스'에서는 한번 결심한 일은 끝장을 봐야 하는 '독종' 검사를 맡아 어떤 상황에서든 굴하지 않는 당찬 모습을 연기한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어스' 오프닝 신기록 '공포영화의 봄'

개봉 첫날 21만3624명 관객 동원 '갯 아웃' 만든 조던 필 감독의 신작 4월엔 공포물 '왓칭' '0.0MHz' 개봉



영화 '어스'

시작부터 터졌다. 27일 개봉한 영화 '어스'가 공포 장르 외화로는 역대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 이전 여름보다 봄에 더 익숙한 공포영화의 힘을 제대로 증명했다.

극장 관람료가 평소보다 저렴한 '문화의 날'에 맞춰 개봉한 '어스'는 작품의 경쟁력까지 뒷받침되면서 출발부터 새 기록을 수립했다. 개봉 당일 관객은 21만3624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지난해 3월28일 개봉해 최종 267만 관객을 기록한 공포영화 '곤지암'의 첫 날 성적(19만8365명)보다 높다.

'어스'는 2017년 5월 개봉한 '갯 아웃'을 통해 독창적인 공포 세계를 구축한 조던 필 감독의 신작이다. 1980년대 미국의 흑인 중산층 가족이 자신들과 똑같이 닮은 또 다른 가족을 만나 겪는 기묘한 일을 그리고 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공포보다, 사회비판적이면서도 흑인의 현실을 반추하게 하는 메시지로 섬뜩함을 더한다.

28일 현재 예매율 1위인 '어스'는 첫 주말인 29일부터 31일까지 흥행 역시 기대된다. 제작진도 한국의 흥행 상황을 내심 주목하고 있다. 앞서 '갯 아웃'이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높은 성적(213만 명)을 거둔 덕분이다. 이를 의식한 듯 조던 필 감독은 "'갯 아웃'은 미국이 낳고 한국이 키운 작품"이라면서 '어스'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공포영화는 다른 장르에 비해 고정 팬이 비교적 탄탄히 구축돼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특정 시기를 공략하는 개봉 방식에서 좀 더 자유로워진 분위기다. 실제로

2017년 '갯 아웃'에 이어 지난해 '곤지암'이 연이어 흥행하면서 '봄=공포'는 성공의 룰 모델이 되고 있다.

공포영화 바람을 이을 영화는 4월과 5월에도 계속된다.

4월17일 개봉하는 강예원 주연의 '왓칭'은 현실 공포를 추구한다. 회사 주차장에서 납치된 여자가 자신을 조여 오는 감시를 피해 필사의 탈출에 나서는 이야기다. 사회적으로도 빈번한 강력범죄를 소재로 차용하지만 가해와 피해의 구도에 머물지 않고 시선을 확장한다.

'왓칭'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플래닛 김중애 실장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CCTV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다룬다"며 "두려워하게나 피하지 않고 맞서는 인물들이 주는 쾌감까지 담았다"고 밝혔다.

정은지가 주연한 '0.0MHz'는 상상력을 극대화해 공포의 세계를 펼친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동아리 친구들이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를 찾으려다 겪는 기이한 일을 그린다. 5년 전 완결된 동명의 원작 웹툰은 지금까지도 공포 팬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한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연예현장.jpg

봄꽃 같은 조윤희 '심쿵 미소'



'봄을 머금은 미소' 연기자 조윤희의 미소가 싱그럽다. 튜브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고 굵은 웨이브의 헤어스타일로 한껏 꾸민 그녀가 여성스러운 매력을 뽐내고 있다. 공개된 사진은 화보 촬영 중에 찍은 비하인드 컷이지만 흐트러짐 없는 포즈가 눈길을 끈다. 특히 2017년 12월 딸을 출산하고 양육과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진제공 | 킹콩by스타트업

신인 권혁현, 강력반 형사 딱이네

OCN '빙의'서 패기쟁이 막내 형사 데뷔 1년 안됐지만 경찰만 세 번째

얕은 신인이다. 하지만 경찰 캐릭터만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방송한 KBS 2TV '추리의 여왕2'에는 의경, OCN '보이스2'에는 신입형사로 출연했다. 이전 그레도 제법 경력을 갖춘 형사가 됐다. 그는 "지겨울 틈 없이 형사 캐릭터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생긴다"고 말했다.



권혁현

연기자 권혁현(26)이 실제 강력반 형사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넘치는 패기로 시청자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OCN 수목드라마 '빙의'에서 강력반 막내 형사 역을 맡고 송새벽과 이원종 등 함께 출연 중인 선배 연기자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사실 권혁현은 데뷔한 지 1년 밖에 되지

19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스포츠동아 사옥에서 만난 그는 막내 형사답게 각 잡힌 자세와 '~습니다'로 끝나는 문어체를 그대로 사용했다. 극중 캐릭터 그 자체였다. 스스로도 "나와 준행이가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혁현은 사전제작 드라마 덕분에 6일 모든 촬영을 마치고 시청자가 되어 드라마를 '분방사수'하고 있다. 그는 "시청자 입장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좀 더 여유롭게 연기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든다"고 고백했다. 드라마에서 이름이 있는 역할을 처음 맡아 욕심이 앞섰다고도 덧붙였다.

그런 권혁현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선배 송새벽과 이원종의 조언 덕분이

다. 그는 "현장에서 선배들이 함께 연기를 고민해주고, 신인시절 이야기도 해주시며 힘을 줬다"고 말했다.

고마운 사람은 또 있다. 바로 소속사 대표인 가수 토니안이다. "사장님이 늘 '잘 될 거니까 절대 지지치 말자'고 말해준다"는 권혁현은 "그런 격려가 심적으로 큰 안정을 준다"고 말했다.

이제는 부드러운 면이 돋보이는 캐릭터를 탐낼 법도 하건만, 그는 "군인이나 재소자를 해보고 싶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여یدن 환영한다는 권혁현은 "언제나 겸손하고, 나태하지 않은 배우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